

익산시 2천억원대 광역복합환승체계 '시동'



1 KTX 익산역 2 KTX 익산역 복합광역환승센터 구축에 대해 브리핑하는 정현을 익산시장 3 KTX 익산역 승강장

전북 익산시가 국토교통부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2천500억원대의 KTX 익산역 환승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1단계 광역환승센터, 2단계 철도 부지 복합개발, 3단계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한 출입국관리시설(CIQ)까지 구축해 명실상부한 철도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근 KTX 익산역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 추진과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2026년까지 약 2천500억원을 투입해 선상부지 8천785㎡에 7층 규모(연면적 6만1천495㎡)로 건립된다. 익산역 이용객이 새만금과 전주, 군산 등 전북 주요 지역과 호남권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기차가 운행되는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고 환승지원 시설을 조성해 익산역 내에서 시내·외 버스, 택시 등으로 모든 환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승 인프라로 역 이용객이 새만금과 전주, 군산 등 도내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익산을 중심으로 호남대도시권 형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립 이후에는 KTX 익산역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익산역 안에 위치한 약 7만3천㎡ 규모의 철도차량기지를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하고 이전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도입하는 복합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만큼 오는 11월에 수립 예정인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반영시켜 2단계 사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단계 사업과 함께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한 출입국관리시설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구축을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개발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환승 유동 인구를 흡수하고 외부로부터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앵커 시설을 도입해 도시재생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



2

3



백제왕궁,
어라하를 뵈다.
益·山·文·化·財·夜·行

2021 익산 문화재 야행

10.8.(금)~10.10.(일)
18:00~23:00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일원
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

10.11.(월)~10.17.(일)
전시 및 온라인 YouTube 익산문화재야행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추진합니다.
※ 문의: 1577-0072 @ iksan_heritage
※ 사전예약 : www.iksan-night.kr

